

눈길 끄는 특·특·행·정

#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해요”

### 이메일 한통에서 온실가스 4g 배출 화순군, 10일까지 이메일 삭제 캠페인

화순군이 탄소중립 주관을 운영,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펼치는 캠페인 주제는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이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탄소 중립 사회 전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 동참을 유도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군은 탄소 중립 주간 동안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해 정보 저장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10일까지 전개한다.

이메일 한 통은 약 4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장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소비도 늘어난다.



**이메일 한 통** 온실가스 4g

- 저장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도 증가
-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컴퓨터를 갖춘 시설로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IT 장비 가동 등에 따라 많은 양의 전력 소모

화순군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 탄소 중립이 실현되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생명 존중” 유기견 한 쌍 입양

### 담양 죽녹원, 지역 공공기관 최초 매표소 등서 24시간 관리키로

담양군 죽녹원이 생명 존중의 가치 실천과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이번에 입양된 유기동물은 골든리트리버 암수 한 쌍으로, 임시보호 중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 될 위기에 놓이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담양대나무자연연구소 산하 죽녹원 측에서 내부 논의 끝에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매표소 쪽에는 아담한 보금자리도 마련했다.

남매로 추정되는 이 유기견들은 지난달 초 주인없이 배회하다 발견됐다.

담양군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높이기 위해 동물인양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역 내 주요 기관과 단체에 유기동물 입양을 독려하고 있다.



죽녹원 관계자는 “사료비와 미용료 등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예정”이라며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입양 활성화의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장성호 수변길 ‘농산물 직거래 마켓’ 매출 3억 달성

### 올 3월 개장·74회 운영 전년 대비 265% 성장

장성군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성호 수변길마켓’이 농가소득 증대의 선봉에 서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장해 74일 동안 운영한 ‘수변길마켓’이 지난 5일 기준 총매출 3억원을 달성했다.

이같은 매출 규모는 지난해 1억1500만원 대비 265% 증가한 것이다.

수변길마켓은 매출 3억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12일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이상 구매 시 쿠폰을 지급하는 ‘고객감사특별전’을 개최한다.

지급된 쿠폰은 현장에 마련된 푸드플랜 참여 농가의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수변길마켓은 장성군이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9년 장성호 주차장 인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성호 수변길마켓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미니 직매장 부스를 만들어 110여 농가에서 260개 품목에 달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 중인 수변길마켓의 매출이 수직상승해 뿌듯하다”며 “질 좋은 상품과 친절함 서비스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장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국도23호선 함평 신광~영광읍 7km 선형 개선

### 총사업비 500억원 연차별 투입

함평군 신광면에서 영광군 영광읍까지 국도23호선 7km 구간에 대한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함평군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하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국도23호선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 포함됐다.

익산청은 2022년 기본설계비 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국도 23호선 7km 구간에 대해 급커브, 선형 불량 구간 등 위

험도로 구조개선과 교차로 정비에 나선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LG화학 나주공장, 사랑의 김치·연탄 나눔행사

### 김장김치 2000kg·연탄 5000장

LG화학 나주공장은 원도심 취약계층에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김장김치와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최근 원도심 3개동(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불우이웃과 노인회관, 지역 아동센터 4개소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김장김치 2000kg(400박스)와 연탄 5000장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건〉 “나사랑 김장김치 나눔 봉사”는 LG화학 나주공장 임직원들이 직접 김장한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주공장의 대표적 행사로, 올해 25년째 이어진 행사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직접 김치를 담그지 못했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장김치 400박스를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

했다.

또 LG화학 나주공장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 25세대에 연탄 5000장을 배달했다.

LG화학 나주공장 이현규 공장장은 “나주시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올 한해 시행된 LG화학 나주공장의 사회공헌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나주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LG화학 나주공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 나주공장은 지난 9월 지역 3개 교의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역 어르신들의 집을 수리하는 ‘나사랑 희망하우스’, 청소년 돌봄시설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전달하는 ‘LG복지재단 사랑의 품앗이’ 등을 실시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